

민족 해방 · 조국 해방 · 인간 해방을 꿈꾸었던 휴머니스트 비운의 ‘혁명가’ 이현상

글_김혜선(실천문학사 편집부 과장)

《이현상 평전》이 출간된 지 이제 꼭 한 달이 되어갑니다. 책이 서점에 깔리고 지면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날부터 편집부 전화벨이 울려대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가구요. 하루에 평균 대여섯 번, 신문 광고가 나간 날은 두세 배쯤으로 증가하는, 전화선 너머에서 《이현상 평전》의 담당자를 찾는 이름의 독자들의 유형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전화를 끊고 나면 그만 쓸쓸해져버려 잠깐씩 손을 놓게 되곤 하는데 어떤 때는 정수리가 뜨끈해질 만큼 열이 올라 얼음 냉수를 몇 번씩 들이켰고 또 어떤 때는 손끝, 발끝이 차디차게 식어오면서 그만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을 만큼 한기가 돌아 아무렇게나 걸쳐놓은 허드레 카디건까지 두르기도 했습니다. 한국현대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숲 속에서 고의로 은폐되거나 왜곡된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디 한두 그루일까만 이번처럼 절절하게 ‘은폐’와 ‘왜곡’의 그늘을 느꼈던 적도 없었던 듯합니다.

고백하건대, 특히 자주 오는 전화, 그러니까 그 양 극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소리는 “과출소 습격해 불 지르고 경찰이고 양민이고 가릴 것 없이 죽여버려야 새끼가 어떻게 혁명가냐”는 항의전화입니다. 대꾸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그 분노에 찬 음성들 중에는 참전용사도 있고 국군토벌대의 후손도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분들의 억울하고 기막힌 심정은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혹시 책은 읽어보셨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대답과 함께 툭 끊어지는 정적, 그 정적 너머로 저와는 또 다른 뜨거운 숨을 토해내고 게실 어르신의 노여움이 쌓여갔던 한 달이었습니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 탓인가요. 이 또한 수십 년, 유형무형으로 세뇌되어 온 ‘은폐’ 되고 ‘왜곡’ 된 우리 현대사가 남긴 폐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니 말입니다. 광고 카피 한 줄, 보도기사 몇 줄 만으로 이백 자 원고지 이천 장에 육박하는 책 한 권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필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셨던 저자 안재성 선생은 숨어 있는 자료와 말을 아끼는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며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철저히 왜곡된 기존의 저작들과는 다른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현상 평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현상은 ‘빨치산 총대장’, ‘남부군 마지막 총사령관’, ‘전설적 지도자’라는 ‘영웅’ 적 수식어들보다, 일제 식민지 치하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묵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염원했던 순수 사회주의자이며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했던 가슴 너럭한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저자가 일제 치하에서 보낸 이현상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6·25전쟁 발발 전후를 공들여 저술한 것도 ‘지리산 속의 이현상’으로만 국한되어 철저히 은폐되어버린 ‘인간 이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에서였을 것입니다.

조국 해방과 민족 해방, 나아가 인간 해방을 꿈꾸었던 휴머니스트 이현상. 일제 치하 십 수년 간의 수감 중에도 결코 변절하지 않았던 강직한 성품의 그는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하여 왜곡되고 은폐되어버린 비운의 혁명가가 틀림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어쩌면 조금은 촌스럽고 무뎠던 사내, 정치적 제스처라고는 아예 몰랐던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인물 이현상’을, 지상 마지막 분단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을 뛰어넘어 봐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한글**

